

# 中·日 무인 편의점 속도전...한국은 아직 시범 단계

### 4차 산업혁명·인건비 급등 맞물려 상용화 “새로운 유통산업, 정부-업계 공동 고민해야”

이마트24가 직영점포 4곳을 야간에 무인점포로 시범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무인편의점 시대’가 본격 열릴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전주 교대점 기숙사, 서울조선호텔점, 성수백영점, 장안메트로점 등 직영점포 4곳에 무인편의점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

낮 시간에는 직원이 직접 계산하고 관리하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는 무인으로 운영된다.

앞서 세븐일레븐은 지난 5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위 31층에 국내 최초로 최첨단 무인 스마트 편의점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를 개관했다.

핸드페이 결제시스템(정맥결제 시스템)과 360도 자동 스캔 무인계산대 등 첨단 기술을 선보이며 롯데월드타워 방문시 꼭 한번 들러야 할 명소가 되고 있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지난 5월 미래형 점포(Future Store) 개선을 위해 KT와 손잡았고 BGF리테일 CU는 SK와 함께 내년 상반기쯤 AI도우미 ‘누구(NUGU)’를 선보일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시범서비스 단계이지만 중국과 일본의 유통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인건비 급등이 맞물린 경영환경 속에서 무인편의점을 잇달아 상용화해 선보이고 있다.

중국과 일본 정부가 유통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무인편의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유통기업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장

기적 투자를 할 여력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KOTRA 자료에 따르면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유통산업 큰손들이 무인편의점 투자에 경쟁적으로 나서 현재 중국 전역에 시범 운영중인 무인편의점 브랜드는 20여 개가 넘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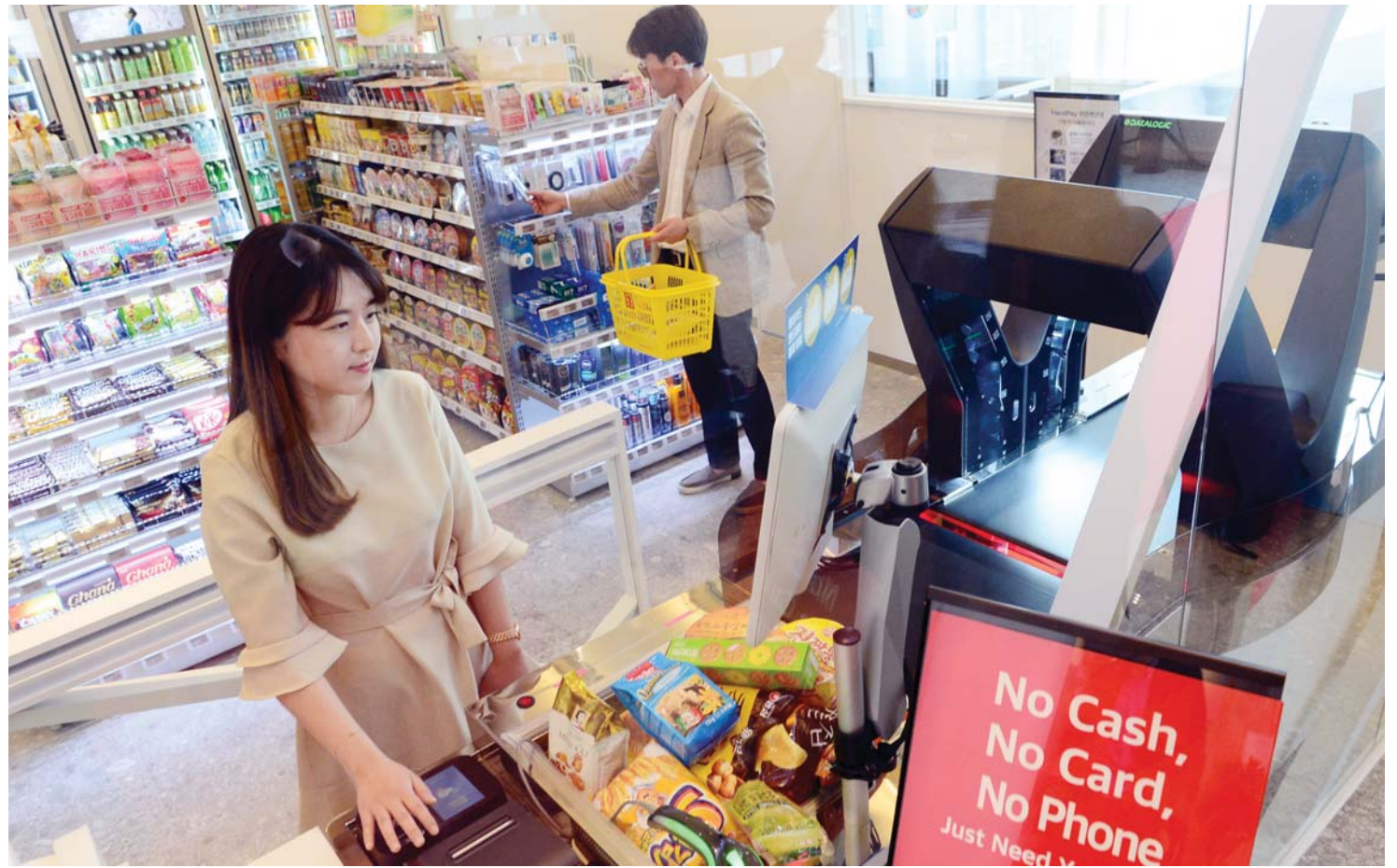
이는 지난해 12월 아마존이 시범운영 중인 무인 매장인 아마존 고(Amazon Go)를 선보인게 계기가 됐다.

지난 6월 상하이에 ‘빙고박스’라는 세계 최초 24시간 전자동 무인 편의점이 들어섰다. 빙고박스는 향후 1년간 산하 브랜드 무인편의점을 5000개 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어 7월 항저우에서는 알리바바가 ‘타오 카페’라는 무인 카페를 시범운영했다.

중국 최대 식품 회사 중 하나인 와하하는 무인 편의점 ‘테이크고(TakeGo)’ 설치를 본격화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무인 편의점 사업에 몰리고 있다. 무인편의점에 투자하려는 벤처 캐피털 자금도 몰리고 있다. 빙고박스와 샤오미이편의점은 각각 1억3000만 위안(약 228억원), 1억2500만 위안(약 218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일본도 무인편의점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일본 경제산업성과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등 일본 5대 편의점은 2025년까지 일본 내 모든 점포에 무인 계산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일본 편의점 업체 로손은 파라스나와 손잡고 상품 정산부터 포장도 해주는 자동화 기기 ‘레지로보’를 도입하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31층 세븐일레븐 무인 편의점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점에서 한 직원이 정맥의 굵기와 모양을 레이저로 인식하는 ‘핸드페이’ 시스템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며 무인계산대 시대의 본격 도래를 알렸다.

일본 편의점 기업들은 현재 중국과 같은 개방형 무인편의점 보다는 일종의 자판기 형태로 된 폐쇄형 진열식 무인편의점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5만5000여 점포가 넘는 일본 편의점 시장은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도심 오피스 빌딩이나 공장 휴게소 등 작은 공간에 설치가능하며 도시락 제품도 구입 가능한 ‘자판기형 편의점’을 새로 개발

했다. 자판기 편의점 분야에 가장 먼저 진출한 패밀리마트는 이미 간토(關東, 간사이(關西) 지방을 중심으로 현재 2100여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세븐일레븐도 2019년 2월까지 이 같은 자판기형 편의점을 전국 500곳 까지 늘릴 계획이다.

로손은 지난 7월 기업 사무실에 커피편 등 가벼운 음식이나 과자 등을 구비하고, ‘셀프 계산’ 단말기를 설치한 ‘미니 무인 편의점’ 사업을 시작했다. 로손은 ‘미니 편의점’을 내년 2월까지 100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유통규제 기조와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문제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무인편의점 본격 추진을 공론화하기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면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주류, 담배 구입 같은 경우는 성인인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완전 무인으로 운영하기는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새로운 유통산업의 진전에 대해 중국이나 일본처럼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마트24 성수백영점.



일본의 한 병원에 설치된 패밀리마트의 ‘무인 자판기 편의점’



중국의 무인편의점 빙고박스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